

# 연일 쪼는 무더위 냉방용품 '불티'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용품은 물론 빙과류, 음료수 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열대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올빼미족'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의 야간 매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고유가 여파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지리와 모시이불 등 전통 여름용품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선풍기·에어컨 등 판매 급증... 야간 할인점 올빼미족 특수

8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무더위로 인해 냉방용품 판매가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에어컨은 지난 6, 7월 이틀새 32대가 팔려나가면서 전주인 6월 말에 비해 매출이 4배 가량 늘었다. 또 이온음료도 같은 기간 578박스나 판매돼 117% 늘어난 것을 비롯, 캔맥주(40%), 빙과(47%), 생수(26%) 등의 매출도 급증했다. 또 올 여름의 경우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풍기와 대지리, 모시이불 등 전통 피서용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에서는 또 선풍기가 최근 이틀간 65대가 판매돼 300%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대지리(40%), 모시이불 등 여름이부자리(38%)의 매출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무더위로 인해 유통업체의 야간 매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이달 들어 밤 늦은 시간에 쇼핑을 즐기는 '올빼미족'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마트의 경우 오후 6시부터 폐점

까지의 매출 구성비가 50.2%로 1주일새 3% 가량 늘었으며, 오후 10시 이후의 매출도 14%까지 높아졌다. 이같은 상황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도 비슷하다. CJ몰에 따르면 지난 1~6일 선풍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량 증가했다. 현대홈쇼핑의 인터넷쇼핑몰인 H몰에서도 지난 5~6일 선풍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나 늘어나는 등 절전형 냉방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가전업체도 때이른 무더위로 인해

'즐거운 비명'에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폭염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하우젠 에어컨 판매량이 전주에 비해 6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에어컨 판매가 비교적 활발했던 지난해 7월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LG전자도 휘센 에어컨이 주말인 지난 5일 올 들어 최대 하루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연일 최대 판매기록을 갈아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동원 제품 소비자 불신 커진다

## 참치캔 이어 콩치통조림서 이물질 발견... 농장 신고 비난도

동원F&B의 각종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동원에서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동원 콩치통조림의 경우 '구두충'이 발견됐는데도 이물질 신고 사실 마저 당국에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동원은 지난달 27일 자사 콩치통조림에서 '구두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도 1주일일이 지난 4일에야 식약청에 보고했다. 당시 동원측은 소비자로부터 '콩치통조림에서 가느다란 벌레 모양의

붉은색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를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동원은 일주일 뒤 식약청이 이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보고를 요청하자 뒤늦게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원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식약청에 보고토록 한 '식품 이물질보고와 조사지침'을 위반했다. 따라서 동원은 이번에 보고된 이물질이 '구두충'으로 확인될 경우 긴급 회수 및 7일간의 제조정지 등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동원은 지난달 6일에도 자사의 콩치통조림에서 '구두충'이 발견돼 즉

각 회수 명령이 내려지는 등 이물질 발견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동원은 지난 3월 참치캔 제품에서 잇따라 커터칼 조각이 발견되자 전사적인 품질 안전성 개선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구두충' 문제 등 정작 또다른 이물질 발견 사실은 쉬쉬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더욱이 동원은 지난해 8월 자사의 가루녹차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즉석밥 선크'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기업 친화적 稅政 운영 더 열심히"

## 취임 100일 맞는 김기주 광주지방국세청장



취임 100일 맞는 김기주 광주지방국세청장

"지난 4월 취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을 운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김기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경제단체와 납세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과 잦은 접촉을 통해 기업친화적인 세정방안을 마련하다보니 세

달이 훌쩍 지나갔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납기연장, 징수유예와 함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압류·공매유예 등을 통해 '섬김세정'을 실천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전략산업과 20년 이상 성실납세 향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세정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동안 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6천412건, 3천3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207건, 1천433억원에 비해 각각 200%, 232.8% 증가했다. 또 김 청장은 납세자를 최우선

# 나노 계측·반도체 제조 필수품 '방진 테이블' 광주서 생산한다

## 광주과기원 박기환 교수팀 국산화 성공



수입산에 의존하던 '방진(防振) 테이블'이 광주에서 생산된다. 방진 테이블은 속도 센서와 진동을 제어하는 작동기를 사용, 외부에서 오는 진동 신호를 제어함으로써 테이블 위에 있는 장비에 전혀 진동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장치로 나노 계측이나 반도체 제조 등 정밀 기술에 필수적이다. 7일 광주과기원에 따르면 기전공학과 센서·액츄에이터 연구실 박기환(사진) 교수팀은 기존 장비에 비해 방진효과가 뛰어난 '6축 능동 방진 테이블'을 제품화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나노 물질의 특성 파악 및 제품 성능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

치는 진동이 상하·좌우·전후 등 6개 축에서 감지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박 교수팀의 방진 테이블은 기존 제품들이 채용한 가속도센서 대신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센서와 전자식 작동기를 자체 개발, 장착해 외국산에 비해 30% 가량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새 제품은 과내 벤처 회사인 엠포시스(www.em4sys.com)를 통해 오는 8월부터 상품화될 계획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광주 신희부부용 주택 50가구 공급

## 연내에... 전국 1만4천가구

올해 연말까지 광주 등 전국에서 1만4천가구의 신희부부용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향후 공공주택 공급량 가운데 신희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을 추산한 결과 전국적으로 1만3천~1만4천가구가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1만1천31가구가로 집계됐으며, 분양일정이 유동적인 민간주택은 2천~3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주택은 소형 분양주택이 237가구, 국민임대주택 9천835가구, 10년임대 459가구,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등이다. 광주의 경우 저소득 신희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50가구를 지원한다. 민간의 신희부부용 주택 첫 공급은 이달 하순경로 예상되는 인천 청라지구의 서해그랑블로, 총 336가구 중 100가구가 신희부부 몫으로 배정될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금호,美 포드자동차에 타이어 年 20만개 공급

금호타이어는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인 포드의 중형차 모델 포커스(Focus)에 신차용 타이어 '솔루스 KH16'을 연 20만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오세철 사장은 "포드와

계약을 맺으면서 크라이슬러와 GM 등 미국의 빅3 메이커 모두에게 제품을 공급하게 됐다"며 "향후 생산량 증대와 유통망 확장 등을 통해 북미시장을 개척해 2015년 세계5위의 타이어 업체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크라이슬러와 GM 등 미국 자동차 회사 외에도 폴크스바겐, 다임러벤츠, 미쓰비시 등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보해, 복분자 최대 수매 기업

## 국내 생산량 30% 사들여... 지난해보다 70% 확대

복분자 수확철(6~7월)을 맞아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를 대량 구입했다. 보해는 복분자주의 시장확대로 지난해보다 70% 증가한 2천900t의 국내산 복분자를 수매했다고 최근 밝

혔다. 보해가 전남·북, 강원지역에서 사들인 복분자는 전국 생산량의 30%에 해당한다. 보해에서 수매한 국내 복분자는 보해 복분자주 외에도 보해 B&F에서 생산하는 복분자 웰빙음료인 '감식초

를 담은 진한 복분자 골드', 복분자 농축액 등으로 '복분자 프리인' 등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보해 관계자는 "지난해 보해 복분자주 총매출은 450억원대로, 올해 600억원대까지 성장할 것"이라며 "보해 복분자주는 현재 미국·중국·호주·뉴질랜드·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 수출돼 우리나라 과실주 수출량 중 대부분인 90%대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조이 여행사 (Joey Travel) advertisement listing various travel packages and prices.

Travel agency advertisement lis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flight packages with prices.

Travel agency advertisement lis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flight packages with prices.

Travel agency advertisement lis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flight packages with prices.